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근

◆ 금요일집회 ◆

찬양과 기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합창 · 중창 · 가족창으로 섬기실 분 신청받는 중

지휘자는 성령님, 지휘봉은 담임목사, 온 성도는 찬양대원. 하나님께서 새 담임목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들이 적지 않다. 그 중 금요일집회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찬양의 바람은 매우 신선하고 새롭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찬양위원회와 예배위원회 지도목사의 기도와 찬양인도로 시작하는 금요일집회는 그야말로 찬양의 잔치다. 두 시간 내내 김성관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집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찬양 속에서 마음의 죄를 씻고, 찬양 가운데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찬양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할 영혼에 새기고, 찬양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다. 찬양을 부르면 무거운 짐진 자의 신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이 가득해진다.

그리고 찬양 중간 중간에는 말씀이 전해진다. 말씀을 함께 읽고 간단한 설명을 듣는다. 말씀의 주제는 언제나 '신앙의 본질'에 맞추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이 강조된다. 그리고 종종 '젊은이 사랑'과 '선교와 구제'에 대한 강조가 집중적으로 전해진다. 주일 대예배에 비해 분위기가 다소 자유롭고 화기애애하다. 일정한 형식이 배제되고, 성령님의 자유로우신 역사하심에 마음을 연다. 그래서인지 성도들의

표정들이 한결 밝고 명랑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찬미의 기쁨에는 여러 섬기는 이들의 '준비된 찬양'이 큰 몫을 차지한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꾸밈없이 깨끗하고 맑은 찬양으로부터, 대학 청년들의 순수하고 힘이 있는 찬양, 정성으로 준비한 구역 식구들의 찬양, 각종 중창단과 찬양대의 원숙한 찬양, 각 찬양대 독창자들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각종 악기들로 준비된 아름다운 연주, 장로 중창단의 성실한 찬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찬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집회에서는 청년부의 마음공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찬양위원회에서는 합창과 중창, 가족창 등으로 준비하여 찬양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준비하여, 주님을 높이는 찬양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드리게 될 때, 금요일집회에서 강조하는 찬양의 정신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기도와 성실한 연습으로 준비된 찬양이 얼마나 고귀하게 드러질 수 있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금요일 집회에서는 온 성도들의 찬양과 함께, 서준성 성도(가브리엘 찬양대의 독창자)와 고등부 중창단, 그리고 차신득 장로의 가족찬양이 어우러졌다. 그리고 돌아오는 31일 금요일집회에서는 청년1

부 중창단과 여전도사 중창단, 그리고 김송자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독창자)의 찬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보다 많은 중현의 성도들이 이 찬양의 잔치에 참

여하여, 찬양과 기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맛보고,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은혜에 잠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학습세례식 11월 16일, 성찬식 11월 23일

97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

11월 2일, 9일(주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11월 16일, 오후 3시에 갈릴리홀에서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1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가독교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11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박경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1월 16일 (주일)	학습세례식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분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어린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작은사랑 음악회

임마누엘찬양대 주관으로 11월 1일 갈릴리홀에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11월 1일(토) 오후 5시에 갈릴리홀에서 '97 작은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농어촌과 공단, 빈민, 단량 지역 등 우리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30여 곳의 탁아방과 공부방에 식혜와 온 명배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스레기선교회의 사역을 섬기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

부모들의 연약함으로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고 가난을 겪어온 채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인 연약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평

의 부스레기들을 모아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은 은총의 특권이다. 이 사랑의 음악회가 종결하는 많은 중현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번 잠기고 그 사랑을 겸손히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소년소녀가장 150여명을 초청하여 진행하게 될 이번 음악회에는 임마누엘찬양대 외에도 부스레기선교회 소속 청소년 중창팀, 우리 교회 중등부 찬양팀, 여성·남성 중창단, 독창, 현악4중주단 및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음악회를 위해 루디아예전도회연합회가 후원한다.

초 청 합 니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의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직식을 거행하오니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기로 한 임직자들과 교회의 뜻을 따라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 / 1997년 10월 30일(목) 오후 7시
곳 / 중현교회 본당

- ◆ 장로 장립 (6명): 한송기 임기채 김준권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 ◆ 집사 장립 (7명): 김용도 최완식 이지은 김연근 박태진 조중광 정전현
- ◆ 권사 취임 (50명): 강순자 강옥자 강호임 고명진 고운자 구옥자 구정희 권영교 권종순 김호순 김계수 김계희 김순은 김연태 김중순 노순옥 도정희 배경자 박정숙 뽐금순 안금자 유효순 윤경윤 윤재선 이강자 이계문 이길순 이남숙 이복희 이상금 이상희 이수자 이호목 이음진 이정애 이정모 이혜자 전정희 전현신 정문대 정옥남 정옥영 정은숙 지원숙 채혜선 최전화 한명희 한순희 홍기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미신을 따라가는 자의 불행

(이사야 8:19-2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인생을 습격해 오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아무것이나 의지해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으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살아 보려는 심정과 같이 인간들이 근심과 질병과 죄악과 사망의 공포에 휩싸일 때에 그 무엇인가 믿고 의지해 보려고 불뉘입니다.

1. 미신이란 무엇입니까

미신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손해볼 것이 뻔한 데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며 미신에 끌려 갑니다.

미신에 끌려 가는 것은 옛날이나 있었지 과학만능시대인 오늘날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미신이 점점 더 성해가고 있습니다.

미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즉 나무로 만든 목신, 돌로 만든 석신, 산에 있는 산신, 물에 있는 수신을 섬기는 것이 전부 미신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신 중에 제일 기가 막히는 것은 본문에서 보여 주는 대로 산 사람의 문제를 죽은 사람에게 물어 보는 미신입니다. 산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죽은 사람에게 물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신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게 됩니까? 육신을 땅에 묻으면 10년, 20년이 지나면 동안에 이것들까지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에 죽음이라는 대문을 통하여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지옥의 죄수로 체포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 영혼은 산 사람과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산 사람들이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합니까. 또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마가 죽은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물어 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신의 행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손금, 관상, 토정비결을 보는 것은 모두 멸망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결혼할 때 날을 받는다

는 것도 역시 미신입니다. 1년 365일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 어느 날이나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날에도 빠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2.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1) 어두운 중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20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는 갈 바를 모르고 어두운 중에서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불안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돌부리에 넘어질까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둘째,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아침 해는 신령한 뜻으로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일생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명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생명의 성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죽어서 썩어졌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 영혼은 죄악으로 썩었습니다.

(2) 영육이 주리게 되고 번조하게 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21절)

‘주릴 것이다’는 말의 뜻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100억을 쌓아 놓고 음식은 진수성찬으로 먹다가 남아서 썩어져 나가도 영혼에는 생명의 떡이 없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번조’하다는 말은 번민 속에서 조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상태에서 삽니다.

(3)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회개하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만은 삽니다. 일생 동안 아무리 험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회개와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죽으면서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자기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러므로 미신을 따라가는 자는 가장 불행스러운 사람입니다.

미신을 따라가는 자는 불안 속에 살고, 위로를 받지 못하며, 생명의 성장이 없고, 그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혼은 죄악으로 썩었습니다. 영육이 주리게 되고 번민 속에 늘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짓습니다.



3.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1)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미신, 손금을 보는 미신, 토정비결을 보는 미신 따위만 견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면에서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까지 금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미신적인 요소가 있겠는가’라고 의아해 하겠으나 간밤에 꾸 꿈을 해석하면서 하루에 할 일을 결정하는 것도 미신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물어 보아 주세요”라고 묻는 것도 요망스러운 미신입니다.

(2)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율법과 증거의 말씀”(20절)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율법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에 한 번 맞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미신적으로 할 수 없고 성경에 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믿으면 시간의 낭비요 물질의 손해요 사업도 모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성경대로 믿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일에는 세상을 떠나도 웃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가정을 망칩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당장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달라서 제각기 한파 디씩 다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을 보고도 큰 것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한 성경을 주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거짓말 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시어 지구

가 그 주위를 6천 년 이상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인간에게 주시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3) 범사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법학박사를 찾아 가지 말고 의사를 찾아 가야 하고, 집을 지으려면 의학박사를 찾아 가지 말고 목수를 찾아 가야 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고목나무 밑이나 돌덩어리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잠못입은 잠자리에 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나!’ 대답해 주십니다. 노동관에서 주먹으로 땀을 쥐어 뿌리며 얼룩진 얼굴로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상과 미신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신적으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GOD'S DEALINGS

(Deuteronomy 8:11-20)

From the very beginning, God chose Abraham as our earthly father. He blessed him and made his descendants (the Israelites and Christians) as numerous as the stars (Gen. 15:5). During the Israelites' enslavement, God chose Moses as their leader from Egypt to the Promised Land (Jerusalem). In the Promised Land, God chose many various leaders (prophets and kings) for the Israelites but the Israelites failed to worship Him. God then chose His only Son (Jesus Christ) as the final leader for all Christians to the New Promised Land, the New Jerusalem - Heaven!

This historical account of human history tells us so much about God's dealings. God's Old Testament grace and New Testament grace reveal His omnipotence (all power), omnipresence (all presence), and omniscience (all knowing); and most importantly His love for us! Many Christians today aren't fully aware of God's dealings; they don't understand His grace. Their perspective of a Christian life doesn't take into account or overlooks hardships and sufferings as the two main traits of Christians. They believe that Christianity is painlessly blissful. This type of thinking is not only biblically wrong but also extremely harmful. As today's scripture passages reveal, hardships and sufferings are part of God's love - they are the avenues that humble us, make our faith stronger, and help us grow closer to our Lord.

The book of Deuteronomy is like Moses' last will and testament to his people. Moses reminds the people of God's love to them and of their love to the Lord as their sovereign God. In Deuteronomy 8, Moses specifically highlights God's dealings and our necessity to know and not forget God. Through his life's experiences, both good and bad, he wants everyone to know God's method in relation to us. He wants us to know how God deals with His children.

Before we get into the heart of Deuteronomy 8's message, we need to appreciate the messenger whom God used to write it. When we look at Moses'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of his life, we see a lot of hardship and suffering. And remember, Moses is well known for being a friend of God. He spent the first forty years of his life living as the Pharaoh's daughters' son. This situation provided him the best clothing, food, shelter, education, political power and training. His life was luxurious and successful - it was a life that everyone dreams about. However, he spent the next forty years as a shepherd in a foreign land (Median). He went from the top of success to the very bottom of success. His connections to his country, family and friends were all taken away. Can you imagine the heartache and suffering he endured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He went from luxury to poverty, from comfortable to uncomfortable, from very popular to extremely lonesome - it was a life that everyone dreads. And yet, God was with him and had never left him.

It was at this stage in Moses' life that God called him into service. He led God's people out of Egypt and through the wilderness for forty years; during which time he experienced tremendous hardships. He also witnessed and performed miracles beyond imagination. Moses walked with God and spoke to God and God walked with Moses and spoke to Moses during these forty years. Moses truly and fully experienced God's dealings firsthand. He knew God.

With this background of experience, Moses informs us how God humbled and tested His people in the desert for forty years to know their hearts - whether or not they would keep His commands.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Deut. 8:3). What did God do? He humbled His people in hunger and then fed them with food from heaven. Why? To teach them that human beings do not live by earthly food alone. Up to this time, no one had this type of experience. The Israelites were privileged to experience firsthand that God alone is sufficient.

Moreover, Jesus quotes this Bible verse! He came to this earth with a huge mission - an overwhelming responsibility. Before beginning his official ministry, he went in the desert to fast for forty days and nights. In his weak human condition, the devil approached him in temptation. This crucial fight started with the tempter asking Jesus to turn the stones into bread. Jesus respond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Matthew 4:4). Jesus' first strike against Satan is Moses' testament of experience. Jesus knew the power of God. He knew that life belongs to God and is God!

We need to fully appreciate and understand this Bible passage. We should know that in God's dealings he humbles us. Only God can do this. Only God can do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하나님의 섭리

(신명기 8:11-20)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들을(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 별들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창 15:5).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많은 지도자들(선지자들과 왕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지도자로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무척 많은 것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전지하심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픔이 없이 복되기만 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뿐 아니라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사랑의 일부이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며,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깝도록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였던 마지막 유언과 증언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며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하여 좋고 나쁜 그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사용하신 전달자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백 이십 년의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처음 사십 년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그에게 최고의 의복, 음식, 주거지, 교육, 정치적 권력과 훈련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고급스럽고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의 사십 년간을 외국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의 최고봉에서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나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모두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삶인 부유한 삶에서 가난한 삶으로, 안락한 삶으로부터 불편한 삶으로, 매우 유명한 삶으로부터 외로운 삶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사십 년간 인도하였습니다. 그 기간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목도하고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하였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십 년간 모세와 동행하셨고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실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배경을 갖고 있는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를 알아보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광야에서 사십 년간 그의 백성을 시험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을 통하여 낮추시고 그들을 하늘의 음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람은 땅의 음식을 통하여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한분만이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었음을 직접 경험하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주님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사역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 주님은 광야로 가서 사십 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연약할 때에 마귀는 주님께 다가와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싸움은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첫번째 달변은 모세가 경험적으로 얻은 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셨으며 스스로 하나님 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유익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루시는 일에는 편파적인 것이

everything! There's no half and half - there's no partiality to God's dealings. He does everything - only everything! Every word that comes from God is life to us who have faith in Jesus. This is a really powerful message: Life is God and God is everything!

Moses continues to remind the Israelites that,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and your feet did not swell during these forty years" (Deut. 8:4). During their very long desert excursion, Moses reminds everyone that not even their clothes got worn out. After traveling for so long, not even their feet swelled. Imagine clothes that last forty years. Imagine traveling mainly by foot for forty years in a desert and not having your feet swell. Miracles of miracles - Moses reminds them of God's constant and continuing love, "He led you through the vast and dreadful desert, that thirsty and waterless land, with its venomous snakes and scorpions. He brought you water out of hard rock" (Deut. 8:15). Throughout their hardships, of which there were many, God was continually with them. In a frightening and dangerous environment, God protected and provided everything for the Israelites. His purpose was to make their faith strong, so that His grace could bless them.

Moses also warns,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failing to observe his commands, his laws and his decrees that I am giving you this day" (Deut. 8:11). He wants to make sure the Israelites stay fully aware of God's presence. Forgetting God leads to destruction and death. Moses wants his beloved people to stay focused on God, for they had already experienced the consequences of rebellion and disobedience; which were extreme hardships and intolerable sufferings - which led many to death. Moses also reminds them, "But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and so confirms his covenant, which he swore to your forefathers, as it is today" (Deut. 8:18). Moses is saying to remember that God not only keeps His promises but does everything for us; and that our part is simply to trust in Him as God.

As Christians, we are like God's chosen people from the Old Testament. Paul refers to us as 'God's fellow workers' and says,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2 Cor. 6:1). Paul's saying that we really need to take God's grace seriously. And he knows because he was a devout Jew who only came to know God's dealings through Christ. His experience on the Damascus road not only changed his direction - it changed his life! He, too, experienced God's dealings firsthand! He suffered imprisonment, persecution, sickness, and many other hardships as God's servant. Through it all he persevered and stood firm in his faith. He was a true Christian that completely understood God's dealings - His amazing grace!

So many times Christians perceive God's grace as something they accept freely without thought. Their thinking is that if they say they believe in Jesus then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s guaranteed. Their faith is superficial or better stated artificial. And it evidences itself in their daily living. They try to avoid Christian dilemmas. In times of stress and turmoil, they turn to the world for help and totally miss God's blessings. Their lack of faith prevents them from experiencing God's dealings firsthand.

If you take God's grace seriously and sincerely, you commend yourself in every way; "in great endurance; in troubles, hardships and distresses; in beating, imprisonments and riots; in hard work, sleepless nights and hunger; in purity, understanding, patience and kindness; in the Holy Spirit and in sincere love; in truthful speech and in the power of God; with weapons of righteousness in the right hand and in the left" (2 Cor. 6:4-7).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se hardships and blessings happen in a life lived for God. Their purpose is to humble us and make us strong in our faith. These things happen to God's people for God's purposes. Suffering is part of growing closer to God. It doesn't mean self inflicted pain or sacrifice - it is an avenue of discipline that God alone decides. Through it we receive His grace abundantly!

Society tries to deceive us and isolate us. Their perception of a good life is measured by material wealth and happiness now. Suffering and hardship is to be avoided at all costs - it is a curse. As Christians, we commend ourselves "through glory and dishonor, bad report and good report; genuine, yet regarded as impostors; known, yet regarded as unknown; dying, and yet we live on; beaten, and yet not killed;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poor, yet making many rich;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everything" (2 Cor. 6:8-10). Our perception of reality is the truth. We understand that living as a Christian entails many hardships and that suffering in Christ is a blessing - not a curse. Although the world tries to stop us and even hurt us, God's grace provides us with the courage and strength to stand firm and persevere.

God's grace is a serious matter. It isn't something that can be accepted halfheartedly. You can't live life as the world does and also live life as God's servant. "Therefore come out from them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Touch no unclean thing, and I will receive you" (2 Cor. 6:17). For God to dwell in us, we must wholeheartedly give ourselves to Him. We can't play on both sides of the playground. We must live on the one side and witness to the other side. We must let God be God in order for us to be His children. We must let His grace be sufficient in order for it to be effective!

Both Moses and Paul experienced God's dealings. Their hardships humbled them into complete reliance on God and made them stronger and more effective servants for God. They knew the secret to God's dealings - the secret of His amazing grace. God calls us to be humble, sincere, and faithful servants. He requires faithfulness through obedience. The consequences of not allowing God to do everything - trying to hold on to the world through your own understanding - is devastating. "Like the nations the Lord destroyed before you, so you will be destroyed for not obeying the Lord your God" (Deut. 8:20).

God's dealings are the very definition of love. Through our faith, His grace humbles and purifies our very nature through trials and tribulations - through darkness and fear - through sadness and despair. It is an amazing grace that transforms our very nature into harmony with God's nature. Let's remember God's grace - His dealings - by observing, obeying, revering, and walking in His way; letting Christ humble, strengthen, and bless us forever!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능력 있는 말씀인데 곧 생명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기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신 8:4)고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긴 여정 중에, 모세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음을 주시시켰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하였지만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 다. 사십 년간 지속되는 의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사십 년간 사막을 다녔으나 부르트지 않는 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중 기적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꾸준히 계속되는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신 8:15). 수많은 역경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두렵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주의 은혜로 복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경고하기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신 8:11)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파멸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로 극단의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역경을 이미 경험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일깨우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신 8:18)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책임은 단순히 주를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구약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 6:1)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은 그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섭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간헐과 꾀박과 질병과 다른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는 믿음 가운데에 남게 되고 강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였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인 듯이 여깁니다. 그들의 생각은 마치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보장된다는 식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인위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날마다의 생활에서 입증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고민을 거부합니다. 스트레스와 혼란의 때에 그들은 세상으로 향하여 도움을 찾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은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다루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 여러분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건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 맞음과 갈핍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우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고후 6:4-6). 우리는 이러한 역경과 축복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자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초래한 고통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시는 훈련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속이고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인생은 물질적 부요함과 현재의 행복에 의하여 측정됩니다. 고통과 역경은 저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 하더라도 회피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고후 6:8-10).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많은 고난을 포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한 상처 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든든히 서서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반신반의하며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 듯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정하여"(고후 6:17).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에 서서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야만 합니다.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을 겸손케 하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들을 더욱 강하고 더욱 효율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밀을 알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고 진지하며 신실한 종들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한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대로 세상을 붙잡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신 8:20).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어둠과 두려움을 통하여, 슬픔과 절망을 통하여 우리들을 본질적으로 순결케 하시며 겸손케 만드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과 조화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시는 섭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자케고,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강인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아멘.

※ 교역자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

포옹으로 엮어진 교역자 수련회

정갑신

(목사, 출판국·교육연구소·중등2부 지도)

지난 10월 20일, 수안보에서 보내는 2박 3일의 일정 중 첫날 저녁이었다. 오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유쾌한 게임들과 운동시합으로 조금씩 피곤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했지만 몸은 노곤했다. 하지만, 저녁 7시에 시작한 담임목사님과의 대담 시간은 거의 11시까지 계속되었고 모든 이들의 눈동자는 빛이 났다. 부교역자들의 진지한 질문들과 담임목사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응답이 계속 이어졌다. 이곳저곳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생각하느라 무엇을 적는 손길들이 눈에 띄었다.

복음밖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 젊은이들을 키워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선교의 역군들로 양성하는 일, 이를 위해 5부에 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일, 사람이나 교회의 이름은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 하늘의 기쁨이 되는 새가족들을 마음 모아 환영하는 일 등 교회의 목회적 강조들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60명에 가까운 교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다. 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십명의 일꾼들을 모아 섬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친절하신 손길에 감격하는 마음이 일었다. 모임을 마친 후 담임목사님은 모든 남자교역자들과, 사모님은 모든 여자교역자들과 일일이 포옹을 나누었다. 작은 자의 눈을 통해,

포옹으로 엮어지는 교역자들,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넘치는 특권이었다.

이번 교역자 수련회는 무엇보다도 선배 교역자들과 최근 2-3개월 이내에



새로 들어온 10여명의 후배 교역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회가 되었다. 2박 3일간의 공동 생활은 서로의 성품과 재능을 잘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찬양에 뛰어난 이들, 운동신경이 '극도로' (?) 발달된 이들,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편안케 해 주는 이들, 잘 섬기는 이들 등 각각의 은사들이 잘 발휘되었다. 한 사람이 다할 수 없었다. 모든 이들이 각각의 아름다운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었다. 나의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금 추스려졌다. 하나님과 동역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



추고 겸손해야 할 이유들을 잘 발견할 수 있었다. 숙소 주변의 모든 산들이 각양 각색의 단풍들로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는 모습에도 우리들을 향하여 '어울려 주님의 몸을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 있었다.

모든 교역자들이 평강을 맛보았다. 나도 참 평안했다. 4명씩 배정된 방에서는 '방식구들'끼리, 10여명씩 엮어진 조모임에서는 '팀 가족들끼리' 평강의 단합을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섬기는 손길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삼일 내내 기막히게(?) 좋은 날씨와 무사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우신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다. 친히 수안보까지 내려온 장로님들도 계셨다.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느라 남들보다 적게 자고, 남들보다 식사를 빨리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의 맘을 흘려야 했던 교역자 임원단이 있었다. 그리고, 텅 빈 교역자실을 '삼일 내내' 지키느라 사랑의 인내와 기도로 함께 해 준 당직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셨다.

이토록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2박 3일의 수련회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세워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

라가 위하여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는가.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역자들과 헌신적인 은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쁘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나눔

최영석

(새가정부 면회회 회장)

새가정부에서는 지난 8월 18일 '반은 사랑에서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라는 마음으로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사랑과 나눔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내 행사이면서도 색다른 외부 요직업체와의 협력 행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긴장하며 준비하고 진행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 회원들의 격려와 기도속에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한 외식업체의 협력으로 교회안이 아닌 외부에서 새가정부 식구들과 여러 이웃, 집안 친지, 직장 동료들이 한데 어울려 저녁 식사를 나누며 뜻깊은 좋은 행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약 삼백 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삼백만원의 행사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이

행사 이익금 전액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년 소녀 가정을 돕는 데에 사용되는데, 현재 세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주 작은 모습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가정부에서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면적인 충실과 외면적인 구제도 병행하면서 소려없이 선한 사업이 확산되어져 갈 바라며, 그 속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도움을 주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영이네를 소개하면 선영이

는 작년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간염환자로 조금 힘든 일만 해도 피로에 지쳐 사회 생활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둘째 남동생 순기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신장(콩팥)병 환자로 자폐현상도 있습니다. 순기는 아직 나이가 어려 신장 이식 수술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내 순영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희한하게도 어린이에겐 잘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선영이의 가장 큰 소원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숙이네는 뽕소니 교통 사고로 이제 부자유자이며 언어 장애가 있으신 엄마와 중3인 경숙이, 중1의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숙이는 불편한 몸에도 학과 후에는 언제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서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특수촬영 등의 검진료로 병원 체납금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의 건강을 바라는 엄마의 기도 속에 오늘도 힘을 내어 학교에 갑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돌보던 어린 두 형제도 기억납니다. 이 두 형제는 돌봐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동네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맡겨졌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주머니마저 심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현재 큰형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장학금을 받으려고 계수중이고 둘째는 반에서 3등안에 드는 우등생인데 큰형이 성년이라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같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위로받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취재수첩

찬송가부르기대회 통해 자라나는 천국일꾼

지난 10월 19일 주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각각 반별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현의 어린이들이 찬송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여야겠다.



중등3부 학부모 초청기도회

중등3부에서는 지난 19일 낮 12시 20분부터 교육관 601호에서 학부모 초청 기도회를 가졌다. 임필성 부장 장로의 사회로 드러진 1부 예배에서 이준경 강도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배 후 임복집 집사(수내중학교 교사)를 강사로 하여 '199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특강을 실시하였다. 개편된 입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문화적 격차를 보내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복음의 은총 아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임있는 지혜로 키우는 일들이 계속되어야겠다. 참석한 학부모들이 자



녀의 진로 지도에 큰 도움을 얻었다.

장년2부 행복한 가정 위한 특강 실시

10월 19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에서는 장년2부 특강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구명신 전도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 특강에서 구 전도사는 자신의 가정 생활을 조목조목 예로 들면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위하여는 부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부간의 화목을 위하여는 훗날 후회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기며 친어머니, 친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대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회원들은 이 특강을 통해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결은



다름아닌 말씀위에 바로 선 가족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전도회 경찰의 날 기념예배 지원

경찰전도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6시 경찰청교회에서 드러진 경찰의 날(10월 21일) 기념예배를 지원하였다. 이 예배에는 200여명의 경찰관, 전·의경이 함께 참석하였는데, 이갑재 장로의 사회, 김희수 목사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경찰전도회 여성중앙단의 특송으로 진행되었다. 예



배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고, 선물도 전달하였다.

이곳에서는

▶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오늘을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초청전도의 날로 지킨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금년 들어 뿌린 복음의 씨앗을 거두고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도도 준비해 왔다. 유아부는 교육관 212호에서, 유년부는 교육관 314호에서, 소년부는 교육관 407호에서 오전 8시 50분과 10시 50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친교를 나누게 된다.

▶ 소망부에서는 오늘 찬송가부르기대회를 특별로 실시한다. 지정곡은 204장이다. 204장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리로다'라는 가사처럼 소망부의 모든 어른들이 찬양하는 여생으로 사시길 기도해야겠다.

이집트 단기선교

단원 모집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 중헌'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 일정 : 97년 12월 22~30일
- 인원 : 10명 내외
- 사역 : 성경학교, 찬양집회, 초청전도집회, 선교세미나, 성탄축하음악예배, 선교지 탐방, 카이로 인근 성지 탐방
- 대상자 : 성경공부, 찬양, 율동을 지도할 수 있는 선교 헌신자
- 신청 : 10월 11일(토)까지
- 문의 : 선교위원회(교한 357) (사진 / 이윤구 기자)

직원모집

1. 자격
 - 1) 25세 전후의 세레받은 남자
 - 2)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근무직
 - 인쇄실 0명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 주민등록등본
 -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제출처
 - 중헌교회 사무국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한 402)

중헌게시판

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고등부(부장 임무원 장로, 지도 이국병 목사)에서는 우리 교회 교사양성부를 수료한 분으로서, 고등부 학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도해 주실 20여분의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교사들은 1998년도부터 고등부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등부에서 봉사하시는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입니다. 이 시간들은 교사공부와 교사회의, 고등부 자체집회와 5부예배, 분반공부 등으로 진행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교한 292번(고등부 교사실)이나 이국병 목사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영아부 피아노 반주자, 주일 새벽기도회 오르간 반주자

영아부에서는 반주자로 봉사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아부 예배는 오전 8시 50분과 10시 50분에 두 번 드러집니다. 이 시간에 맞추어 반주로 봉사하실 분은 영아부를 지도하고 있는 한영준 전도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일새벽예배에 오르간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도 모집합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은 찬양위원회 지도 현상민 목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부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위원회에서는 5부예배 찬양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 청년부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중현의 젊은이들 중 새례교인으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찬양대 가인 원서는 찬양위원회실(본당1층 / 구내전화 205번)에서 교부합니다. 5부찬양대의 연습시간은 매주 토요일 18:30-20:00과 주일 14:20-14:45, 16:10-16:50입니다. 찬양대원 모집 마감은 10월 26일이고, 모집된 찬양대는 11월부터 찬양대로 서게 됩니다.

'함께 세우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성도를 기다립니다. 9-12월을 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 교회 '사랑부(정신장애아부서)'의 지체들 중 방배동 지역에 사는 이들을 교회학교에 등교시켜주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이 지체들의 등교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이고, 하교시간은 낮 12시 30분입니다. '함께 세우는 예수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섬겨 주실 분은 주일에 교육관 1층에 있는 사랑부 교사실(교육관 105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성도들께서는 연약한 지체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모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예배(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예배 및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식사, 선물 증정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초청할 만한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손질한 겨울옷이나 생활에 요긴한 생활필수품(비누, 칫약, 일상용품, 각종 식용통조림류, 이불, 가방 등)들을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11월 9일(주일)까지 영어예배(교육)부(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1월 16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문의 : 이승림 목사(552-8200), 이부성 집사(790-1123).
- 이정형 선생(442-2659)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we'll be having a Thanksgiving Celebration party on the 16th of Nov., from 09:00 to 14:00 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B1.

Please kindly help invite internationals in Korea around you. This will be a special event of sharing with the internationals. Please bring some gifts items(clothes, necessities of life, etc.) to the church that we can share during the party. contact to : Rev. Paul S. Lee(Tel. 552-8200)